

yaiña

YANA STORY

VOL 4
2022

X-MAS EXPRESS

2021년 크리스마스,
그 또 다른 기적
이진희



특집 YSAP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소외된 친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최은지

특집 동명방문기

‘동명’이란 이름의
따뜻한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수정

YANA119

보호종료 후에도 YANA는
아이들의 ‘아픔’에 함께합니다
김용식

YANA USA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영선



“혁아, 졸업을 축하한다.”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입니다.”

“네가 해 낸 거야.”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2021

VOL 4

발행인 PUBLISHER 신순규

편집장 EDITOR IN CHIEF 이수정

편집위원 EDITOR 양혜원

WRITERS & CONTRIBUTORS

이영선 최은지 이수진 김용식 현교명 이수정 이진희 이석주

번역 TRANSLATIONS Cindy Park Lisa Oh Young Lee 이수정 양혜원

사진 PHOTO 이종오 양경원 이진희

레이아웃 LAYOUT StoryBird Publishing

광고디자인 AD DESIGN StoryBird Publishing 노윤주

인쇄 PRINTING StoryBird Publishing

PUBLISHED BY YANA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www.yanaministry.org

admin@yanaministry.org

201.446.4871

SPONSORED BY TRUE LIGHT CHURCH 

www.truelight.org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201.530.0053

 yania

contents

* YANA STORY는 YANA Ministry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입니다.

04 YSAP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소외된 친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 최은지

12 동명방문기

‘동명’이란 이름의 따뜻한 집에 다녀왔습니다 / 이수정

18 YNOT CONFERENCE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 이수진

20 YANA119

보호종료 후에도 YANA는 아이들의 ‘아픔’에
함께합니다 / 김용식

22 후원의 글

지금, 당신의 고아와 과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 현교명

24 YANA USA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 이영선

26 SMP

Oh, So Much Potential! / 이석주

30 X-MAS EXPRESS

2021년 크리스마스, 그 또 다른 기적 / 이진희

32 THANK YOU FOR YOUR SUPPORT

yania 특집기획

Special

04 YSAP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소외된 친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최은지

12 동명방문기

‘동명’이란 이름의 따뜻한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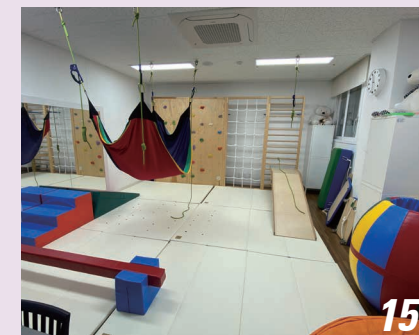
04



05



12



15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소외된 친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YSAP을 통한 미국 대학교 제1호 졸업생 최은지 양

YANA Ministry 에게 2021년은 참으로 뜻깊은 해였습니다. YSAP(YANA Study Abroad Program) 의 첫 대학생인 최은지 양이 유씨 리버사이드(UC Riverside)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뉴저지에 위치한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Bergen Community College)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할 때, 은지는 영어 한 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줍은 소녀였습니다. 어학연수를 시작,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진학해 6년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온 은지를 격려하고 또 축하하며,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YANA



■ yaha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유씨 리버사이드(UC Riverside)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 yaha 취미가 뭔가요?

취미는 유튜브나 웹툰 보는 걸 좋아해요. 가끔 그림 그리는 것도 즐겨서 하고요.

■ yaha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딱히 특기,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잘 그려줄 수 있어요.

■ yaha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맛있는 저녁도 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 보면서 다음날을 준비하는 저녁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 yaha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스시를 좋아합니다.

■ yaha YANA 를 처음 만난 건 언제였나요?

제가 13살 때 황주 목사님이 저희 보육원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오셨어요. 그때 황주 목사님과 야나 스태프 분들을 처음 만났고, 매년 여름마다 여름성경학교를 오셔서 그때부터 YANA와 소중한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yaha YANA 유학생으로 선정되고 어떤 심정이었나요?

처음에는 마냥 기쁘고 신난다고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잘 모르고요. 낯선 땅에 갑자기 가게 되어서 걱정 반 설렘 반인 기분으로 유학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 yaha 처음 미국 와서 힘들었던 점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플라잉 해피니스(Flying Happiness)’로 와서, 현지 사람들의 실생활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유학을 와 막상 보니까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더구나 저는 차가 없어 늘 버스를 이용했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판타지랑 다른 그 겍에서 오는 괴리감이랄까, 언어랑 문화도 다르고, 아무튼 좀 무서웠어요.

■ yaha 미국으로 유학 와서 좋았던 점은?

수업방식이 수동적이지 아니라 능동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요. 저는 내성적이라 처음에는 그런 수업방식에 잘 적응 못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정체성을 길러준다는 느낌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전에는 눈치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Graduation

■ yaia 진학할 대학교를 유시 리버사이드로 선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단 캘리포니아를 좋아해요. 야자수도 너무 좋아하고, 서울이랑 미국 동부에서 살 때는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치열한 경쟁사회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곳에 가고 싶었어요. 뉴저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미국인들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왕 미국에 온 김에 살아보고 싶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에서 별 고민 없이 이 학교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더 생각할 것 없이 덥석 물었죠(웃음).

■ yaia 학교에서 겪은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ESL듣고 처음으로 교양 수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가까이 앉은 학생들과 그룹 프로젝트를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 너댓 명과 동그렇게 앉아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나는 유학생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셔.”하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제 또래인 한 여학생이 “나는 미국 가정에 입양 됐어.”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소개하던 그 친구가 굉장히 멋져 보이고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 yaia 서부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뉴저지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는데 서부로 혼자 날아와 다시 홀로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다 보니까 외국인 룸메이트 3명과 같이 살았는데 문화 차이도 있고 제가 영어에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에 룸메이트들에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는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겐 값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yaia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어땠나요?

한국은 갑자기 가게 되었어요. 보육원을 퇴소한 입장이자 갑자기 살 곳을 구해야 된다는 게 일단 힘들었는데 다행히 원룸을 빨리 구할 수 있어서 다시 학교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새벽에 공부가 잘 돼서 시차는 크게 방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서 19살에 퇴소해 바로 미국에 갔는데 그 이후로는 제 친 오빠와 명절을 같이 보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같이 한국 명절도 보내고, 제 기억에 처음으로 제 생일과 오빠 생일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서로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 줄 수 있었죠.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서 1년 4계절을 보낸 것도 기억에 남아요.

“졸업이란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시작’이란 느낌이라 설렘도 있어요.”



▲멘토 이영선 이사와 최은지 학생



▲이영선 이사 부부와 황주 목사, 그리고 최은지 양과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박지나 학생(YSAP)

■ yaia 졸업하는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제 졸업을 했는데 솔직히 시원섭섭하네요. 미국 살면서는 한국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제 막상 진짜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됩니다. 여기 미국에 있으면 제가 아무리 성인이어도 저를 돌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 가면 정말 ‘자립’을 해야 하니까요. 취업 준비도 바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제게 졸업이란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시작’이란 느낌이라 설렘도 있어요. 무엇보다 미국에 살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 그런지 이상하게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시원 섭섭하면서도 기대되는 부분도 있어요.

■ yaia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에 가면 아무래도 바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업 준비의 기본인 컴활자격증, 기업에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 한국사 등 보통 제 나이 취업 준비생들이 따는 자격증에 바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 yaia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받았던 이 모든 감사한 일을 나중에 소외된 친구들한테 그대로 돌려줄 수 있게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 yaia 은지 양에게 YANA란?

YANA는 제게 울타리입니다. 형제가 뚜렷한 울타리보다는 저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힘들 때 언제나 보호막이 되어 주는 울타리요.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담 낮은 울타리입니다. 힘들면 들어와 쉬고, 자유롭게 뛰어 놀고 싶을 때는 또 울타리를 열어 주고, 제가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 yaia 은지 양에게 황주 목사님이란?

저한테 황주 목사님은 무조건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분입니다. ‘목사님’이란 이름은 저희 보육원이 기독교라 그곳에서 자란 제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갖거든요. YANA를 어린 나이에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더 허물없는 삼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란 호칭 뒤에 삼촌, 가족 같은 고마운 분, 참 멋있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 잊지 않고 살 겁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You are not alone)”



I Want to Return All the Blessings I've Received to Underprivileged Children

Eunji Choi, the first college graduate through
YANA Study Abroad Program

2021 was a very meaningful year for YANA Ministry. This is because Choi Eunji, the first college student of the YANA Study Abroad Program(YSAP), graduated from UC Riverside. When she started language training at Bergen Community College in New Jersey in 2015, Eunji was a shy girl who couldn't speak English properly. We sat down with Eunji to congratulate her on accomplishing language training, starting from community college and going t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ll in the past six years.

Interviewed by YANA STAFF

Self-Introduction

Hello, my name is Eunji Choi. I majored in Psychology at UC Riverside.

What are your hobbies?

I enjoy watching YouTube videos and webtoons. I also like to draw.

Do you have any special talents?

I don't really have a special talent. I do, however, enjoy drawing and am able to draw what people request rather quickly.

What is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I like to lie down and look at my cellphone, watching YouTube videos and webtoons after dinner while preparing for the next day.

What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chicken and sushi.

What was it like meeting YANA for the first time?

Pastor Joo came to host VBS(Vacational Bible School) at Dongmyung Children's Home when I was 13. I met Pastor Joo and YANA staff members that year and subsequently when they returned every summer for VBS. That is how my relationship with YANA began.

How did you feel when you were selected to study in the States as part of YANA's YSAP program?

Rather than feeling excited and happy, I was a little reluctant at first due to th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 I was both worried and excited about being in a foreign land.

Were there challenges of studying in the States?

Because my first exposure to the States was through YANA's Flying Happiness program where I simply toured the States, I wasn't familiar with everyday life in the States. It felt as though I was flying blind. Because I didn't have a car, I had to use the bus to get everywhere. I had a hard time dealing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ntasy I had about living in the States and the reality. It was scary to deal with a new language and culture.

What did you like about studying in the States?

I liked the fact that the classes were conducted in a proactive rather than a passive manner. Students were encouraged to share their opinions. Because I was an introvert, I initially had a hard time adjusting to this new system. As I began taking more classes, I was able to voice my views honestly and freely, and it felt as though my self-confidence was growing. I have become more extroverted from 5 years ago, and I have become a less self-conscious since then.

Why did you choose UC Riverside?

The main reason I chose to study at UC riverside is that I love California and I love palm trees. Having lived in both Seoul and the Eastcoast, I felt that they were both fast-paced and competitive. I wanted to be in a more laid-back environment. My friends in New Jersey told me that California is a place where even Americans dream about living. I decided I might as well live in a place I want if I am going to continue living in the States. I did not hesitate with the decision, and I also took advantage of the scholarship the school offered me.

Any special memories of your years at UC Riverside?

The most memorable episode occurred when I took my first liberal arts class after completing my ESL classes. Our professor assigned the students to small groups of 4 to 5 to work on a group project, and we sat in a circle in our perspective groups. When it came time to introduce ourselves, I vaguely announced that I was an international student, and that my parents were in Korea. A girl who seemed to be about my age proudly introduced herself as an adoptee. I really admired the pride and confidence she exuded when she spoke about herself.

Any challenges while attending school on the Westcoast?

In New Jersey, I was surrounded by people I was familiar with. Flying out to the Westcoast and learning to live on my own was difficult. Since I was alone in California, I found an apartment and ended up living with 3 non-Korean roommates. It took some time for me to get used to the new living arrangement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language barrier. In retrospect, the time proved to be invaluable since it wasn't something I could experience in Korea.

What was it like to take online classes from Korea during the pandemic?

It was hard to find a place to live in Korea as an aged-out person since I went back so unexpectedly. Fortunately, I found a studio, and was able to live by my daily school schedule. I study well during late nights, and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countries did not bother me.

Since aging out at age 18 and moving to the States shortly after, I had not spent holidays with my older brother who lives in Korea. While I was in Korea for those 18 months, I spent Korean holidays with him and celebrated our birthdays together. We wished each other happy birthday face to face for the first time since becoming adults. Spending all 4 seasons with my family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about my time in Korea.

How do you feel about graduating from UC Riverside?

I graduated yesterday, and to be honest, I have mixed feelings about it. I missed Korea while I was in the States. But now that I am really becoming independent, I am worried. If I stayed in the States, I know there would be people who are still looking out for me. Once I return to Korea, I have to really become independent, and find a job right away. Graduation means a new start, not an end for me. I am also filled with anticipation as I have become more confident from all the positive energy that I got while I was in the States. I am somewhat bittersweet, but I also look forward to a new beginning.

What are your plans once you return to Korea?

I have to study to earn a certificate to prepare for employment as soon as I go back to Korea. I want to earn the certificate required by those seeking employment in my age group or other certificates such as one in Korean history which may be useful in getting a job at a large corporation.

What are your dreams?

My dream, more or less, is to become a decent person who can eventually share all the support and love I have received with kids who are abandoned and neglected.

What does YANA mean to you?

YANA is like a 'fence' that provides peace, protection and security. It's not a fence with a clear boundary, but one that accepts me as who I am. I don't know its limits, but it serves as a fence that protects me when I am in times of trouble. It is easily accessible so that I can enter it and rest when I am worn out, and it lets me out when I want to freely roam outside. It is a fence that is always there for me if I need it.

What does Pastor Joo mean to you?

Pastor Joo is someone I wish I had met a bit earlier in my life. Because Dongmyung is operated on a Christian foundation, I was in awe of his status as a pastor. If I had met YANA when I was younger, I think he may have been like an uncle to me. Beyond his title, he is an uncle, a family, someone I am thankful for, admire and respect. I'll keep in mind what he's said always to me,

“YOU ARE NOT ALONE”.

YSAP을 통해 미국대학재학중인 학생들 (YSAP College Students)

“Yejin, this is the home you can always come back to.”

These words from my American dad are forever engraved in my heart and have been my driving force in life. Through the YSAP program, I learned the happiness of having a home and a family to go back to. The warmth and outpouring of love I received from YANA family allowed me to dream of building my own happy family in the future, which I never thought was possible in the orphanage. Moreover, attending school in the States enabled me to dream of becoming a nurse to help others. YANA has made me realize how valuable and blessed I am. Being a part of YANA for nearly 8 years, I realized that there are still so many broken children without families. I pray that these children can find healthy families and be full of happiness. As YANA became my home, I hope to become a person that can be a family for these children and reciprocates the love I received.

예진아, 여기는 너가 항상 돌아올 수 있는 너의 집이야.”

미국 아빠가 해준 이 말은 저의 가슴에 박혀 지금까지 저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집,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 YSAP(YANA Study Abroad Program)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나 유학프로그램의 첫 학생으로 12 살에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YANA 는, 그리고 제 가족은 제가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고 축복받은 아이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YANA 가족들과 함께하며 보육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편론,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가족 없이 아파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저와 같은 행복이 찾아오길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YANA처럼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줄 수 있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간호사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바로 곁에서 머물며 치료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항상 내 곁에 머물며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저희 가족과 YANA처럼요.

‘Hyeok, how about studying in the States?’

Although I was somewhat frightened by the suggestion made by the director of Dongmyung Childrens’ Home, I felt an immediate urge to seize the opportunity.

I could not speak English nor did I accel in academics. Despite of my shortcomings, members of the YANA family encouraged, trusted and supported me. Thanks to their unconditional love, I flew to America, graduated high school and started attending a university.

I suffered numerous sports-related injuries while growing up, and there was always someone to help and treat me. I felt a lot of warmth through all the support I received, and was grateful that I was not alone in this world. My dream is to help and treat those that are wounded. I will study hard so I can end up sharing the love and support I received with those around me.

“헉아, 미국에서 공부 한번 해 보겠니?” 국장님의 말씀에 겁도 났지만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특별히 잘하지 못했던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믿어 주시고 응원해주신 야나 가족 덕분에, 상상도 못했던 미국 유학을 오고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가 자주 다쳤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고 치료해 줬어요.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파스함을 많이 느꼈고, 혼자가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꿈은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받았던 도움과 사랑을 주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NA HYEON KIM



I first entered the welfare center when I was 4 years old.

Although I don't have any memories of or keep in touch with my birth mother, I was still able to mature into a person of sound body and mind through the care of the director and the center mothers. Growing up, I lacked patience and grit and found myself often times giving up in the midst of many presented opportunities. I had no interest in studying and lost my chance to apply to my high school of choice due to low academic performance. At that moment, I thought of all the younger children at the center.

I resolved to become better because they were looking up to me. Through rigorous studying, I was able to become valedictorian and I tried to live a life I was proud of as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body for all 3 years. One day in my junior year, I happened to attend a lecture by a well-known chef. It changed my life forever. I began to dream of becoming a chef that could cater to people's hearts through food. I aspire to be a chef. I'm so happy and grateful that YANA Ministry provided me with this opportunity to study in a more global setting. Because I have received so much unconditional love and support, I hope to one-day give back to those that need it.

저는 만 4 살에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저를 낳아 주신 분의 기억과 소식은 전혀 없지만, 원장님과 사회복지사 어머님들의 보살핌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부족했던 아이였던 저는 많은 기회들을 도중에 포기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이 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성적 때문에 진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복지 시설에 있는 많은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자라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전교 1 등이라는 결과도 내고, 고등학교 3 년 내내 학급 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2 학년 재학 중 우연히 듣게 된 유명 셰프님의 강의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요리사가 된 제 모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요리사입니다. YANA를 통해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조건 없이 받았던 많은 사랑과 후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갚고 싶습니다.

My childhood in the welfare center molded me into someone that tried so hard not to deviate from the norm. I was a child that wasn't able to vocalize what I wanted, and I was someone who believed that I was not valued. At the time all my peers were preparing to go to college, I wondered if I would be able to go, too. However, through YANA, I was given an opportunity to study abroad—something that I had never even imagined. In taking the opportunity, my heart was two-fold. I wanted to leave my circumstances behind, but at the same time, I wanted to be able to take this challenge into stride despite my circumstances. I came to the US and received an outpouring of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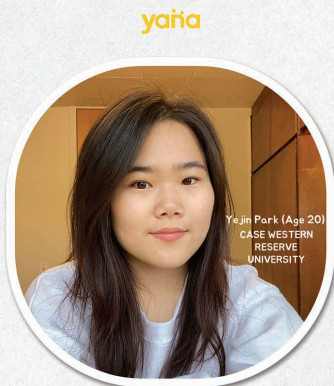
While studying in my new environment and being a part of the YANA family, I slowly came to realize that I was enough. I was loved for who I was.

I'm now at a place where I'm thinking about what kind of person I'm supposed to be, and what career to pursue. I just want to thank all those who have walked along side me in my journey. Thank you. No matter what job I have in the future, all I know is that I want to be someone who is able to love someone else as freely as I have been loved.

어려서부터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온 저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였고, 스스로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 다 가는 대학이라, 나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무렵, 야나를 통해 상상도 못했던 미국 유학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대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며 야나 가족들과 지내면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벅찬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저의 소중한 미래를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아왔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JINA PARK



YEJIN PARK



HYEOK KANG



‘동명’이란 이름의 따뜻한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수정 / 작가, YANA 뉴스레터 편집



▶ 동명 본관 전경



▲ 동명 교무실 입구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0월의 어느 날 오후, 택시를 타고 동명에서 내렸다. 운전기사는 알려 준 주소대로 왔는데 건물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며 연신 고개를 가웃거렸다.

“여기가 맞는데 이상하네요.”

초행길이라 불안하긴 했지만 주소가 맞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택시에서 내렸다. 알고 보니, 동명은 내가 내린 건물에서 조금 더 높은 쪽으로 뒤에 있었다. 바깥에 두 남자 선생님이 안내관 같은 걸 붙이려 서 있다가 나를 보고 인사를 건네왔다.

“어떻게 오셨나요?”

친절한 미소 뒤에 사뭇 신중함을 잃지 않는 눈빛. 그럴 만도 했다. 한창 수위가 높아진 코비드19 방역 방침 때문에 외부인 방문은 철저히 금하고 있다가 한시적으로 방문이 허락된 상태였다. 아이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선생님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미국의 참빛교회에서 온 이수정 집사입니다. 제가 YANA 뉴스레터 편집을 맡고 있기도 해서 찾아 뵈었어요.”

그러자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가 일시에 허물어지고 두 선생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아, 오신다고 들었어요. 어서 들어 오세요.”

조금 먼저 들어선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가 온통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또 다른 두 분을 모시고 나왔다. 한 분은 동명의 원장 선생님, 다른 한 분은 복지사 선생님이었다. 그 동안 이번 방문과 관해 나와 연락을 주고 받던 이진희 복지사 선생님은 동명에서 보호종료가 끝난 아이의 자녀 돌잔치에 갔다고 했다. 복지사 선생님은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대신 동명을 안내해 주시겠다고 했다. 나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 놓고 선생님을 따라 나섰다. 선생님은 우선, 아이들이 생활하는 숙사를 보여 주시겠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 숙사는 동명 본관 왼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가 보육원 숙소라고요?”

집짓 놀란 내 말투에 복지사 선생님이 빙긋이 웃었다. 아이들 숙소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보육원’이라면 주택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높은 담과 철문 같은 걸 두른 ‘시설’ 같은 외관을 생각했더니, 내 자신도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동명의 숙소는 4층 정도의, 한국의 주택가면 으레 있는 평범한 빌라 건물이었다. 아이들에게 ‘보육원’ 보다는 ‘집’에서 산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동네 집들하고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설명이었다.

본관으로 들어서자 선생님이 벽에 붙은 사진을 가리켰다. 오래된 흑백사진부터 지금의 원색사진까지, 모두 동명의 지난 역사들이라고 했다. 1950년, 전쟁고아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명은 지난 70여 년 동안 수많은 고아, 기아 및 결손가정 아동들을 양육, 보호하면서 1,500여명을 사회의 일꾼으로 배출시켰다고...

현재 동명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다. 아이들은 만 3세부터 만 18세 아동까지 모두



58명,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46명이다. 생활지도 선생님은 숙식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눈을 뜬 아침에도 잠자리에 드는 밤에도 늘 곁을 지키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한다. 그 외 원장님, 사무국장님, 심리상담원,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자립지원전담, 후원 및 자원봉사 담당, 학습터 담당 등 동명의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대단히 세분되어 있었다.

동명 본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간 지하에는 널찍한 강당과 세미나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가 시간에 게임도 하고 영상도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실이 마련되어 있다.



▲미디어실

1층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는 세미나실이 두 곳, 그리고 사무실과 원장실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50여 명이 이용 가능한, (YANA 가족들에게는 익숙해 마지 않는) ‘야나카페’ 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는데 식사는 시간을 나누어 아이들이 기거하는 소숙사 별로 번갈아 한다. 식사는 영양 균형을 고려해 밥, 국, 김치, 육류 중심의 한식 밥상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양식, 중식 등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특식이 제공된다고 한다.



식당 옆 쪽으로도 각각 분리된 방들이 여럿 보였다. 어떤 방은 안락해 보이는 소파와 책상, 또 어떤 방은 모래놀이 기구, 또 어떤 방은 책과 장난감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상담센터’ 라는 이름 하에 제 각각의 고유 기능을 가진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개별상담실, 미술치료, 감각통합치료실이었다. 특히 ‘치료실’의 역할을 하는 방들이 인상적이었다. 언어적 발달을 돕고자 각종 기구들이 갖춰진 언어치료실, 미술놀이를 통해 마음을 치료하는 미술치료실, 신체 놀이를 통해 균형 잡힌 감각 및 근육 발달을 돕는 감각통합치료실... 생의 초기에 부모와 떨어지는 혼란을 겪은 아이들에게서 자주 언어 및 감각 발달 이상이 나타난다는 복지사 선생님의 설명이 더해졌다.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몇이 이런 저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오니?” 하며 선생님이 아이의 등에서 큰 가방을 들어 내려주자 살며시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웃어 보이는 아이... 이 시간 무렵이면 여느 집에서 볼 수 있을, 따스한 풍경.

동명 견학이 끝나갈 무렵, 돌잔치에 갔던 김연희 사무국장님과 이진희 복지사 선생님이 돌아오셨다. 선생님들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일어설 생각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그만, 4시간을 넘고 말았다. 나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는 ‘엄마’들의 ‘육아고민’으로 무르익었다. 내 직업이 작가라는 말에 사무국장님이 아이들이 쓴 그림일기를 보여 주었다. 또박또박 정갈한 글씨,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글씨, 꼼꼼하게 색칠한 그림,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그림 등 다양작생이었지만 사무국장님과 선생님은 한 장 한 장 그림에 얹힌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 주었다. ‘엄마’가 아니라면 지을 수 없는 눈빛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을 속내들을...

내게 뒤이는 약속이 없었더라면 필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을 것이다. 원장님과 사무국장님, 또 다른 선생님들께 작별 인사를 하고, 지하철 타는 곳까지 태워다 주시겠다는 이진희 선생님과 동명을 나눴다. 내리기 직전, 이별을 아쉬워하며 이진희 선생님과 저절로 손이 맞잡아졌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비교도 할 수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리면서 옷깃을 여미 정도로 스산한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계단을 홀로 내려오는 내 마음은 훈기로 가득했다.

동명이란 따뜻한 집에서 ‘엄마·아빠’ 선생님들, 그리고 언니·오빠·누나·형·동생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을 줄 아는 ‘큰’ 가족을 만났기에...



A Heartwarming Visit to a Home Named “Dong-Myung”

Soo-Crystal Lee / **Writer, YANA STORY Editor**

One rainy autumn afternoon, I took a taxi and got off at Dong-myung. The taxi driver looked confused as he saw no sign as we approached the address I had given him.

“This seems to be the address, but I’m not sure where we are.”

This was my first time here so I couldn’t be sure either, but I trusted that the driver had gotten me to the correct address and got out. Dong-myung was a few buildings behind the address I had been given. As I approached, two men standing near the entrance looked over.

“What brings you here today?”

He had a friendly smile, but was alert nonetheless. They had been closed off to any outsiders due to COVID restrictions, but were currently open again for a brief period. As the teachers, it was their duty to prioritize the children’s safety.

“Hi, I’m Soo-jeong from True Light Church. As the editor of the YANA newsletter, I had been wanting to visit Dong-myung for a while.”

The alertness in the two men’s eyes faded instantly, as they greeted me with a warm smile.

“Oh, yes, we heard that you were coming. Welcome.”

One of the two teacher’s walked in and brought along two others, who also had the same warm, bright smiles on their faces. One of them was the principal of Dong-myung, and the other was a social worker. She told me that Jin-hee Lee, the other social worker I had been communicating with regarding the details of my visit, was currently away at a party to celebrate a baby’s first birthday. She would take me around Dong-myung until Ms. Lee returned.

The first place she took me was the children’s living area, which was located to the left of the main building.

“You’re saying this is the dorm?”

I couldn’t hide my surprise, at which the social worker smiled. I was embarrassed to admit that I had my own prejudice when I pictured an orphanage dormitory—I pictured a closed-off facility with a steel door and a fence surrounding it, but what I saw at Dong-myung was completely different. The dormitory was a four-story tall villa that looked just like any residential villa you could see in Korea. The social worker explained that the dorm helped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living in an actual home, not a facility, and blended in with the other homes in the neighborhood.

Back in the main building, we stood in front of a collage of photos on the wall. There were black-and-white photos

all the way to color photos, which showed the history of Dong-myung. Dong-myung had been founded in 1950, to protect children who had lost their families from the war. Over the years, Dong-myung became a center for thousands of orphans, helping them grow with the support that children need, until they eventually were ready to enter society on their own.

Currently, Dong-myung is a home for many children and teachers. There are 58 children, from ages 3 to 18, and 46 teachers who take care of them. The main teachers stay with the children for 24 hours, basically taking on the role of their parents. Besides the main teachers, the roles are further divided into specific positions to help support the children: principal, director, psychologist, nurse, cook, guidance counselor, academic instructor, and others.

In the basement, there was a large lecture hall and seminar room, along with a media room for the children to enjoy their free time and play games or watch movies.

On the first floor were two meeting rooms for the teachers to facilitate various programs and meetings, an office and principal’s office. On the second floor was the cafeteria, which is named “YANA Cafe” (a familiar name to our YANA family). Since its capacity is around 50 people, the children from different floors in the dorm take turns eating. The meals are nutrition-balanced with mostly Korean dishes of rice, soup, kim-chi, and meat, and other cuisines are provided once a week for children to enjoy.

Next to the cafeteria were several rooms. One was a cozy room with a sofa and desk, another had a sandbox and toys, and another had books and even more toys for the children. These rooms made up the Counseling Center, with rooms designed specifically for play therapy, language therapy, art therapy, one-on-one counseling, and sensory integration therapy. The language therapy room had various devices to help children with language delays, the art therapy room had art supplies to help children express themselves through art, the sensory integration therapy room had devices to provide children with physical therapy… The social worker explained that children who were separated from or lost their parents at an early age struggled with language or sensory processing delays.

Just then, several children who had finished their school classes approached the Counseling Center, separating into their own rooms. When the teachers welcomed them and took their heavy backpacks, the children looked up with a smile and held their hands—a moment you could see at any other household.

As my visit to Dong-myung was nearing the end, Director Yeon-hee Kim and Ms. Lee, returned from the birthday party. I hoped to have a brief chat with them over tea, as to not take too much time away from their busy schedules, but we ended up talking for four hours. As a parent myself, our conversations on parenting seemed to never end. When I mentioned that I was a writer, the director showed me drawing journals that the children kept. They went through each drawing, each drawn with each child’s unique style, and carefully explained to me the stories told by the children.

They poured their heart into explaining each one, with a love and compassion that showed they were the children’s true family.

Our conversation only came to an end because I had another schedule after our meeting. I said my farewell to all the teachers of Dong-myung, and left with Ms. Lee who said she would escort me to the subway station. Right before our goodbye, we both reached out and grabbed each other’s hand.

“What I’ve learned over the years, being with the children is that I learn so much more from them than what I could ever teach them. I am so grateful to our Heavenly Father that he has allowed me to be here.”

Even though it was a rainy, cool day, as I walked down the stairs of the subway station, I felt a warmth spread throughout my heart.

During my brief stay, I had met teachers—no, parents—and children—no, a family who loved and cared for one another—at the home named Dong-myung.

Sweet
Home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letter...



이영선 / YANA USA 이사

어느덧 YANA와 함께한 지 8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입학하거나 졸업을 하고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면서 멋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예쁜 만남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루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저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안녕,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희가 겪은 어려움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너희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너희들을 더 알아가면서 내가 너희들 위로하노라 했던 말들이 얼마나 얄은 지 깨닫고 부끄러웠었다. 너희들이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너희에게, 마음에,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또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겪은 고유한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너희의 삶, 마음이 어떤지, 결코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희를 아기는 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현재와 미래를 응원하고 기대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삶을 만들어갈 때, “이정도 살면 잘 사는 거니까 더 이상을 바라고 기대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닌 이전 삶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너희는 충분히 바라며 날아오를 수 있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바라는 것이 성공이든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함 이든 “너희의 삶의 중요한 무언가”를 원하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원하고 싶어. 그냥 말로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정을 지내 온 너희에게 과거의 삶과는 다른 ‘선물’ 같은 삶이 너희의 현재와 미래에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진심으로 기대하고 믿으며 기도해.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너희가 쉬어 갈 수 있도록 집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둘게. 너희의 마음에도 우리 집이 숨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그래도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닌 아껴주는 이들과 공유하고 나눌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한국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날아와, 환영할게! 너희가 선택한 모든 길을 닦아주고 보호해줄 수는 없더라도 능히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 이라고 늘 믿어.

As You Begin Your Journey Onwards

In the blink of an eye, 8 years has gone by since I have started my walk with YANA. Students I met when they were in high school have entered or graduated college and are wonderfully progressing along in their journey in becoming parts of society. Building these precious relationships have become such a cherished time of my life. So, instead of boring you with my story, I wanted to pen a letter to our children.

Youngsun Lee / YANA USA

When we first met, I thought that I had poured a lot of time into trying to grasp and make sense of the hardships that have been brought to you. However, the more time we spend together, the more I get to know you, the more shame I feel at the shallow words of comfort that I had doled out. I thought I had an understanding of how deeply your hardship had affected you, your heart, and your everyday. And we'll continue to meet again, and I'm sure we'll share more about each other and have many a connecting moments. But, I've come to think that I'll never be able to fully comprehend your hearts regarding your lives that have come from your unique experiences.

As one person that truly cares for you, I'm rooting for your present and future. Whilst you carve your way into society, I don't want to tell you, "Living like this is good enough, so don't expect anything else!" Instead, I want to encourage you not to live comforted by the present. I encourage you to shrug off the burdens of the yoke of your past and live a life of expectation. It's okay to want, to desire more, to seek; whether it be success, or a peace that someone else cannot understand, I want you to know that it is okay not to give up whatever it is that you deem important in your life. These are not words that I say in passing, but words that I pray. I truly hope and encourage you to walk beyond your past hardships and glide into the gift that is the present and build a future abundant with your dreams.

And I'll be here with heart and home wide open to offer a resting place for whenever you are tired and weary. I hope that you remember that you're not alone, that you don't have to do this all by yourself, that you consider us a home and a resting place to return to. Even if you're in Korea, feel free to fly on over. I'll welcome you with open arms!

I cannot pave or always protect you on the roads that you have selected to explore, but I have faith that God is surely powerful and willing to do what I cannot do. So I will desperately seek on your behalf, always.

보호종료 후에도 YANA는 아이들의 ‘아픔’에 함께합니다



김용식 / YANA KOREA 이사



YANA 코리아 이사로 참여하고 있던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야나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한 동안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답은 참 쉽지 않았습니 다. 거창하게 떠올린 답변은 공허했 습니다. 결국 찾은 답은, 누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 다 면 정말 좋을 것이고, 야나는 나에게 그런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YANA 119는 야나 코리아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YANA KOREA’ 를 만들 고 보호시설 아이들과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이사진 대부분이 의사들로 구성되었기에 아이들에게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큼 잘 할 수 있고 행복한 일이 없 을 것 같아 2019년부터 준비하여 2020년, ‘YANA 119’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해 서울시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YANA 119’ 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긴급한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질병은 젊은 보호 종료아동들에게 드물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이 생겼을 때 보호종료아동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 람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치료가 늦어지고 후유증 이 남아 삶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YANA 119’는 이런 아동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진료과의 39개 협력 의료기관들을 찾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도 움을 요청하면 이사진이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미리 알립니 다. 이후 실무진이 아픈 아동들과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원하며 치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돕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24명의 아동들이 ‘YANA 119’ 를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골절 같은 사고로 인한 정형외과 질 환이 많았고, 갑상선 항진증 같은 내과 질환, 부인과 질환, 치과 질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급성질환으로 짧은 기간에 완치되었지만, 암으로 긴 시간 투병해야 할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경제적인 도움에도 감 사해했지만,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두렵고 어색한 병원 방문에 동행해 주어 따뜻하게 배려 받고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YANA는 그 마을 속 한 명의 어 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지면 을 빌어 아이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마다 동반해준 대표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바쁜 시 간에도 자상하게 설명하고 치료해주신 협력 병원 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nglish

Sharing the Pain of Children Who Are No Longer Protected By the System

Yongshik Kim / YANA KOREA

In 2017, when YANA Korea was founded, we searched for a way in which we could support young adults who have aged out of the system, once they reach the age of eighteen. Since most of the YANA board members were doctors, in 2020 we launched a new project, ‘YANA 119,’ in hopes that we could give medical support to these young adults. Thankfully, this project was awarded a grant by the city of Seoul.

‘YANA 119’ is a project that provides emergency medical care to young adults no longer protected by the system. When these young adults face emergency situations, they don’t know how and where to find help and many people do not take interest. Besides that, most of them are in financially difficult situations, which leads to delayed treatment that eventually can affect their daily lives.

Through ‘YANA 119,’ we strive to provide not only treatment, but psycholog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these young adults. We are currently collaborating with 39 different medical clinics that focus in various fields. When someone reaches out for help, the board evaluates the situation, and refers them to the appropriate facility that can treat their case. Furthermore, our board members accompany them to the hospital, help pay for medical fees, and keep in communication with them even after treatment.

Over the past two years, 24 young adults have received aid through ‘YANA 119.’ There were various treatments needed: those who had bone fracture that required orthopedic care, those who had hyperthyroidism that required internal medicinal care, along with those who needed gynecological and dental care. Most cases were treated after a short period, but there was one young adult who had cancer and needed long-term treatment.

Due to a shortage of funds, we still feel sorry to these young adults for not being able to provide the full support they need. However, they express their gratitude for not only the financial support they receive, but having someone to accompany them on their visits to the hospital, and most importantly, having someone to guide them through difficult, scary times.

There is a saying that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one child. YANA hopes to become one of the adults in that village. And we pray that more people will take interest in the situations of these children, and join us in providing the support that they need. I would like to thank the President and Director for accompanying the young adults on their visits to the hospitals, and the doctors of the various facilities we collaborated with who were always 100% supportive in helping treat them.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이수진 / YNOT Director, YANA USA

2021년 2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일하는 한 자매가 YANA 미니스트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가진 달란트로 또 10여 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이루어 낸 경력과 경험으로, YANA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봉사자로 YANA Ministry와 인연을 시작한 이수진 자매는 2021년 7월, YNOT 컨퍼런스 (YNOT Conference)의 디렉터로 2022년에 있을 'YNOT Conference'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회사에서 일하다 YANA를 알게 되어 1년쯤 전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YANA는 한국의 요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그리고 미혼모를 돌보는 건강한 비영리 단체들을 함께 모아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개최된 2021 YNOT 컨퍼런스에서는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는 'Carry and Keep', 신생아 위탁 및 입양을 위한 'Adopt and Foster', 요보호 아동의 성장을 위한 'Raise and Provide', 보호종료아동의 안정된 자립을 위한 'Exit and Enter'로 나누어진 'CARE' 카테고리를 소개하고, 각 분야의 단체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점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에도 지속적인 온라인 미팅을 하며 소식을 공유해 온 YANA는 10명의 비영리 단체 리더들과도 직접 만나 현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YANA 패밀리로 함께하는 배우 신애라 씨



몇 달에 걸친 방문과 리더십 모임을 통해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단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비영리단체 직원들과 보육원 선생님들의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과 신뢰를 토대로 YANA는 2022년,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의 파트너 비영리 단체와 교회, 봉사자와 후원자,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방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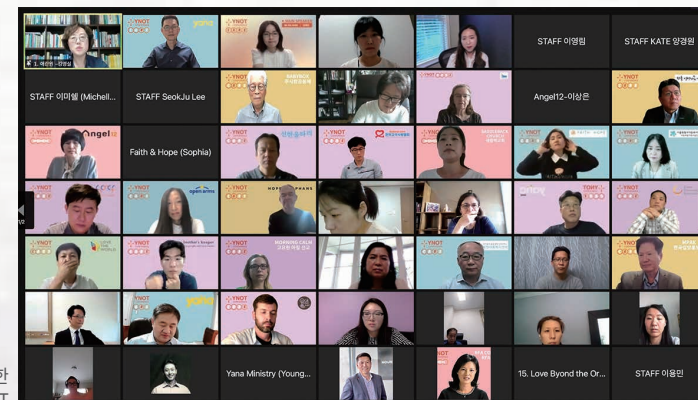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hen Hearts Come Together



▲ CARE System

▶ 30여 단체가 참여한
2021년 YNOT



Jeannie Lee / YNOT Director, YANA USA

In February of 2021, the YANA ministry got an email from a Christian woman working at a company in Silicon Valley. She explained that with her experience of working ten years at the company, she now hoped to contribute to YANA's mission. Her sympathy for the vulnerable children and her desire to help them out was delivered through her voice. She joined the YANA ministry in July of 2021 as the Director, and is currently organizing the 2022 YNOT Conference.

Hi, I am Jeannie Lee, and I joined YANA about a year ago after leaving my job in Silicon Valley. Over the past year, YANA has worked in collaboration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serving Korean orphans, end-of-care children, single mothers, and newborns to build an innovative network for the goal of building a safe haven for those not protected by society.

At our first online YNOT Conference in June of 2021, we met with approximately 30 CARE (C: Carry and Keep, A: Adopt and Foster, R: Raise and Provide, E: Exit and Enter) partners to introduce and learn about each other. Through this conference, we shared both challenges and success stories of each group to better learn how we could help each other out.

This conference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imagine the influence we could bring to society when our hearts came together. We also got to hear from the teachers and staff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hildren homes who work most closely with the children, who told us heartbreaking stories.

YANA's extended mission this year is to continue our work from the past year—collaborating with our partner organizations, churches, volunteers, business, and local communities in Korea—and create innovative ways in which we can build a safe haven for the children, single mothers, and others who are not protected by society.

I send my gratitude to God who made all this possible.

당신의 고아와 과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교명 / 후원가족, YANA USA

현교명님은 지난 2019년부터 함께한 YANA Ministry 의 가족으로, YSAP 친구들에게 등직한 삼촌으로, 또 YANA의 'Monthly Dream Savings' 를 통해 한국의 보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 아동을 개인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제게 YANA가 어떤 의미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좇는 사람에게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볼 때 형상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경건이 진실로 정결하고 더러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뜻을 성경(야고보서 1:27)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기적이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돌아봅니다. 6남매 중 셋째인 저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교 잘 보내면 잘 키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 시절,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만 잘되기를 바라나요?’ 하고 되묻더군요. 그 뒤로 오랫동안 저는 그 대답을 목사님께 구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목사님이 주신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네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남의 아이들을 길러라”

값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너보다 약하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갇히라. 예수님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께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으로 향하는 제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는 ‘컴패션(Compassion)’이라는 단체를 통해 볼리비아의 5학년 남자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는 있지만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단체와 결별했고 우리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친구(목사)가 한국의 14 살 중학생 소녀 가장의 후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후원했던 열 네 살 소녀 가장은 스물 다섯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내 딸이 돼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 팔짱을 끼면서 ‘네, 아빠.’하고 웃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이 셋입니다. 제 ‘장녀’는 두 동생도 아주 잘 키워 냈고 어느새 마흔 다섯 중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의 기준은 세월과 함께 계속 바뀌었지만 그게 무엇이든 저는 제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일을 YANA를 통해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을 좇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고아와 과부는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the Widows and Orphans in Your Life?

Kyomyung Hyun / YANA USA

²⁷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James 1:27

I asked myself what YANA meant to me. To me, it meant the power of righteousness.

Why is someone seeking righteousness called to care for the orphans and widows? It's probably because it is outside of the scope of what we are capable of. The righteousness that the Apostle James speaks of is only a formality until we are able to outwardly surpass our limitations and take care of others that need us. That is the way to God acknowledging that our religion is indeed pure and faultless in His eyes.

The Bible (in James 1: 27) explicitly states that we are to help the widows and orphans.

I cannot help but recount how I – once a selfish man – met Christ. I am the third oldest child in a family of six. I had thought that raising a child “well” meant to give them the necessities to sustain life – to feed, cloth, and provide a place for them to sleep.

But as time wore on and my relationship with God grew deeper, I began worry. Shouldn't my children know Christ like I did? I asked my pastor at the time. What can I do to ensure that my children are successful? My pastor in turn asked me, “How can you wish for success for only your children?”

I cajoled him for a long time to hear an answer. And after awhile he carefully said, “**Cleanse yourself of your sin, and raise another's children**”. For the price of sins you cannot repay, pay it forward in places that need you. Jesus says, “if you give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 least of my followers, you will surely be rewarded”. You do not pay the price of your sins to Jesus. This was my step to approaching righteousness.

I have two daughters. And on their behalf, I began to sponsor a boy in the 5th grade who lived in Bolivia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Compassion. This child had parents, but their family life was very hard. After some time, he graduated high school, ended his relationship with the organization and we lost touch. However, during that time, my wife's friend (a pastor) was looking for a sponsor for a 14-year-old girl in the seventh grade. She was left as the primary caretaker of her family – a younger brother and sister. This was a start down a new road for me.

And more time passed. The child that I had started to sponsor at 14 had graduated college at the age of 25.

During one of my travels to Korea, I had the opportunity to ask if she would become my daughter. She linked her arm through mine and gladly said, “yes, Dad”. She was an orphan no longer. I now had three daughters. As the eldest sibling, my daughter also raised her younger brother and sister very well. She is now a 45-year-old ahjumma – a force to be reckoned with. My standards of raising children “well” have constantly changed over the years, but whatever it might be, I know my children are very happy.

It would be great if it was through YANA, but it doesn't have to be. The key takeaway is that God has called us to care for the orphans and widows. This is the start of road to the pursuit of righteousness because only then will the power of God take a hold in and transform your life.

God is asking us even now.

Where are the widows and orphans in your life?

Oh, So Much Potential!



이석주 / Staff, YANA KOREA



▲ 동명의 김광빈 원장

“올해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겠죠? 미국 스텝도 한국 스텝도 직접 아이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니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위한 SMP 진행 방식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스텝들이 SMP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던 중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나오지 않기를 바라던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원하지 않았지만 수긍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의견이었습니다.

스태프들 모두 지난 해보다 상황이 나아져 SMP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텝들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는 지난 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는 그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새롭게 등장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를 원하는 스텝들의 기대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들이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시기이기에 SMP 역시 현재 상황에 맞게 그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 2021 SMP에서 리더로 섬기는 동명의 큰 아이들



▲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즐거움과 은혜로움은 여전합니다!

미국에서 SMP 진행을 위한 영상과 물품을 보내 주었고 그 물품과 영상으로 큰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 작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진행해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걱정은 믿음 없는 어른의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큰 아이들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데코레이션, 진행, 리더까지 맡은 역할을 너무나 잘해 주었고,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들의 리더에 따라 온전히 SMP에 빠져 들어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동명 선생님들의 수고 역시 SMP의 진행에 큰 몫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SMP가 잘 진행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세웠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저의 걱정을 괜한 걱정으로 만들어 준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또한 황주 목사님께서 기존의 'SMT(Summer Mission Trip)'의 이름을 'SMP(So Much Potential)'로 명칭을 바꾸신 큰 뜻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된 SMP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여러 곳을 다니며 아이들과 뛰어 놀았던 2019년과 같은 SMP를 기대합니다. **제가 SMP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울고 웃고 신나게 뛰어 놀며 'You Are Not Alone'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도 저 스스로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의 염려를 모두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제가 기대하는 SMP가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팬데믹으로 외출이 힘든 아이들을 위해 에어집 선물!



▲ 아이들에게 나눠줄 깜짝 선물

Oh, So Much Potential!

Seokju Lee / YANA KOREA

"It seems like it will be difficult to see the children in person this year again.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staff cannot meet the children in person, so we will have to think of a different way to organize SMP this year." During our staff meeting regarding SMP, we all came to a conclusion that we had hoped to avoid. Although we had high hopes for having SMP in person this year, the pandemic unexpectedly became even more severe and the situation was not looking good. With the new variants, we could not meet the children again this year. As much as we wanted to see the children in person, the children's safety and health was most important to us. We were all learning to deal with an unfamiliar situation, and we were no longer able to do the things that had once been so familiar. We had to find a different way to organize SMP.

The staff in the U.S. sent the staff in Korea a video and supplies for the SMP, and the program was organized by the older children who led the younger children. We could not help but worry that we could not be there in person to help. It was the children's first time to lead a whole program by themselves, without the help of teachers.

However, I realized that the adults had worried for no reason. The older children had experience from previous years and accomplished everything, from decorating, organizing, to leading the whole event. The younger children looked up to them as mentors and followed their lead for the whole event. Furthermore, although the Dong-myung teachers could not be present with them, their help was a big contribution to the success of SMP.

I couldn't believe that I had doubted the children's ability to organize the program by themselves, and I was so grateful to them for proving that my worries were unnecessary. Now I understood why Pastor Hwang had changed the name from 'Summer Mission Trip' to 'So Much Potential.'

Thanks to the children, the SMP was another success, althoug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years. However, I still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can all come together in person, and the children can run around together and enjoy SMP just as they did in 2019. **It's an amazing moment when the children, and the staff, including myself, can truly understand the message of 'You Are Not Alone.'**

Regardless of the unexpected changes during the pandemic, I will continue to pray that God will guide us through this hard time and help us to come together for the 2022 SMP. I hope you will pray with me.



2021년 크리스마스, 그 또 다른 기적

이진희 / 복지사, 동명아동복지센터



2021년은 미국에서 야나 스텝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오시지 못했지만 이 모두가 동명과 야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임을 압니다



안녕하세요 동명아동복지센터에 재원아동 및 퇴소아동의 자립을 담당하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적.

2020년 2월 '플라잉 해피니스'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한국에 도착하니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다녀온 여행이 기적의 '플라잉 해피니스'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021년은 온라인으로 VBS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미국 야나와 함께 했던 10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가벼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동명의 아이들은 동명 스텝이 아닌 야나 스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

2021년 12월 동명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아이들과 선생님들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집 안에서의 생활에 불만을 갖지 않고 잘 지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동들과 격리되어 있는 일부 선생님들은 2주가 넘게 나오지 못한 채 아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려운 때에 서로 하나가 되어 챙기며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때 동명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기간에 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나와 동명을 연결해주시고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격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창문 너머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 인사와 노래를 불러주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에게 웃을 선물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야나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 12월을 보내는 동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며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Christmas of 2021, Yet Another Miracle

Jin-hee Lee / Social Worker of Dong-Myung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인 아이들에게 창문 너머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야나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My name is Jin-hee Lee, and I am the social worker of Dong-myung, working with both children currently at Dong-myung, and those who have left.

Before I tell you the story of the Christmas Express, I would like to share a few miracles that happened at Dong-myung.

The first miracle.

Right when the children and I visited for the 'Flying Happiness' anniversary in 2020, COVID-19 had just started spreading across the world. After we returned to Korea, the virus was spreading fast in the United States. That was the last trip the children and I have been able to go on. It was the miracle of 'Flying Happiness.'

The second miracle.

Due to COVID-19, our summer VBS was completely virtual in 2020 and 2021. I felt that I had taken for granted the last ten years that we had shared with YANA. Those ten years trained the children to grow their faith in God. It was then that I realized that the children of Dong-myung were not only Dong-myung's family, but also YANA's family. The children were a gift, a miracle, from God.

The third miracle.

In December of 2021, Dong-myung had its first case of COVID. Some teachers and children were exposed, and had to quarantine for two weeks. When we felt that we could not get through this on our own, we felt God's presence, his guidance in the children's and teacher's lives. The children did not complain even during the quarantine and while some of the teachers were not available due to quarantine, the other teachers filled their gaps and everyone prayed for one another. It was a time for us to realize that all the teachers and children were a family of God.

Due to the severity of COVID, we could not join for the Christmas Express in 2021. However, it was another chance for us to realize the plans God had in store for both Dong-myung and YANA.

That's why I believe the Christmas Express of 2021 is also a miracle. Even during quarantine, social workers gave presents to the children over the window, gifted presents for the teachers, and helped celebrate Christmas together. It was a time that helped us remember that YANA was with us nonetheless.

This was the miracle of Christmas for the children and teachers of Dong-myung. Thank you.

THANKS

Thank you for donating to YANA Ministry. Because of your generosity, we are now able to support the children that we would otherwise not be able to assist. With your help, we will continue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underprivileged children. God bless you!



ADIO Corrective Chiropractic
Aesook Kang
Amitie Inc
Andrew Lee
Ann Kim MD PC

Byung Chan Kim
Byung Kwon

Chin Song
Christopher Kim Rehab Inc
Chaesang Jung
Chan Park
Charmhee lee
Chin Song / Seo Hyang Song
Choi Soo Youn
Christina Kwon
Christina Lee
Christopher Kim Rehab Inc.

Dae Sub Lim
Dahye Kim
David Ahn
David Park
Denise J Kim
Do Hee Park
Do Young Chong
Donald/Gabrielle Olson

Early Connect Corp.
Ellim Kim
Erin Kang
Eun Joon Han
Eunchan Oh
Eunha Rim
Eunice Moon

Gina Jung
GLO Solution LLC

Grace Lee
Grace Park
Greater Horizons

Hauhn International Inc.
Hee Kang
Heesung Chung
Hendrik Eshuis
Hoyoung Lee
Hyewon Yang
Hyojung Park
Hyon Yu
Hyun Mi Kim/Hyun Ju Kim
Hyun Yi park
Hyung Ju Hwang
Hyunkyung Kim

In Young Je
In2 Church
Inseob Lee
Isaac Kim

Jae Yoo
Jae-wook Ahn
Jaesun Park
Jaewoong Chung
James Kim
Jane Cho
Jay C Cho/Sandra S Cho
JC Distributor Corp
Jeannie Lee
Jee Hoon Lee
Jeehyun Kim
Jeeyoung Kim
Jenny S Kim
Jeonghwan Kim
Jessica Park
Ji Won Woo
Ji Yeon Han

Jiyeon Lee
Jimmy Lee
Jin Hee Yoo
Jin Min
Jinyoung Kim
Jiwon Cho
Jiyeon Oh
Jiyoun Son
Jong Woo Lee
Jonghwan Kim/Denise J Kim
Jongwon Kang/Eunkyung Kim
Joo Solution LLC
Joo Whang
joo yeon nam
Joeeun Min
Joon Park
Josheph Lee
Joy Kim
Juhwan Lee
Juhyun Kim
Jung Han LLC
Junghoon Park
Justin Park

Kayla Chung
Kisun Kim
Korean Church of Tri- Valley
Kumhee Kim
Kwabena Osei-Boaten
Kyeonwon Yang
Kyo M Hyun/ Choon T Hyun
Kyong Whang
Kyu Hak Kim
Kyungja Han
Kyungsik Lee

Lira Oh

M and F Cosmetic

Michael Oh
Michelle Lee
Mihee Baek
Mikyung Kim
Min J Park
Moon S Kang/ Eun S Kang
Moongil Cho
MPAK
Myung McIntosh

Nicholas Goode

Onyou Kim

Parks Sports Line Inc.
Paul Hwang
Paul KeyoHoon Kim
Paul Lee
Pom S Kim
Power Muscle
PSK

Richard S An/Sonia S An
Riel Yu/ Kyungwon Kang

Sang K Choi
Sang Lee
Sarah Ahn
Sarah Yu
Se Yeon Hwang
Seung Soon Choi
Sky High Property Solution
Soojeong Lee/Jecheol Park
Sookja S Ahn
Soonkyu Shin/Grace Shin
Soonnam Kim/Joom Kim
Soyeon Kwon
Soyoung Shin
Stephen M&Danielle M Piacentine

Stephen Park/Grace Park
Suhyun Kim
Suji Kwon
Sul-ki Lee
Sun Kim
Sung Lee
Suzanne Lee

Terri Kim
The David R & Patricia D
Atkinson Foundation
True Light Presbyterian Church
The Yuna Foundation
Theresa Chung
Tiffany Hwang
Tous Les Jours Closter
Tri Valley Presbyterian Church

Vesta Oh LLC
Victor Choi/ Sylvia Choi

Water and Tree Corp
Won Park

YKC Inc
Yong Jun Chee
Yong S Yi
Yongmin Lee
Yoon Kim
Yoonhee Kim
Yoonju Roh
Young Lee
Young S Kim/ Sung Kim
Youngbae Park
Youni Kim
Yun Lee
Yurim Roh

Even when you feel
alone, you are not
alone

빌라
정원



📍 18 Essex rd Paramus NJ 07052

🌐 www.yanaminsty.org

✉ admin@yanaministry.org

📞 201-446-5871

